



2009학년도 육군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제 1 교시

언어 영역

공 통

성명

수험번호

1

-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문제는 2점 20문항, 3점 20문항 총 40문항입니다.(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조하십시오.)

1. <보기>의 주제에 따라 글쓰기 계획을 세웠다고 할 때, 세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보 기>—

- 주 제 : 혼혈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정립
- 주제문 :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혼혈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을 버려야 한다.

순 서	세부 내용
문제 인식	○ 혼혈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 다수가 아직도 편견을 가지고 혼혈인을 바라보고 있다. ①
예상 독자 설정	○ 일반 시민을 비롯하여 학생 및 학부모들을 예상 독자로 설정한다. ②
전개 방향 결정	○ 문제 인식과 관련된 실태를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 뒤,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순서로 전개한다. ③
문제 원인 분석	○ 설문 조사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일 민족 국가라는 의식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밝힌다. ○ 혈연 및 지연을 중시하는 의식 구조가 다른 나라보다 강하다는 점을 통계 조사 자료를 인용하여 제시한다. ④
해결 방안 제시	○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열린 의식을 강조하고, 혼혈인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⑤ ○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 혈연과 지연을 중시하기보다는 같은 인간이라는 시각에서 혼혈인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함을 홍보한다.

2. <보기>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교육’에 관한 글을 작성하고자 할 때,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보 기>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루브 골드버그 장치’를 만드는 평가가 있었다. ‘루브 골드버그 장치’란 단순한 일을 복잡하고 번거롭게 수행하는 장치이다. 최종 10명의 후보들은 로켓이 발사되는 단추를 최소한 열다섯 단계를 거쳐 누르는 장치를 만들어야 했다. 예를 들어 전원 스위치를 넣으면 골프공이 발사되고, 그것이 굴러가서 무엇인가를 건드리면 성냥에 불이 붙고, 그 불이 램프를 켜서 용기의 물을 끓이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 마지막에 장난감 자동차가 발사 단추를 누르는 식이다. 이 장치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공학적 지식 외에 물리·화학적 지식 등이 필요할 뿐 아니라, 기발한 과학적 상상력과 만드는 이의 유머 감각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미국의 피듀 대학에서는 매년 ‘루브 골드버그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미국의 중·고등학교에서도 방학 숙제로 이 장치를 만들어오게 하는 경우가 많다.

- ① 인과 관계의 학습을 통하여 논리적인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② 학습을 통해 배운 지식을 실제에 적용해 보는 것이 교육의 효과를 높인다.
- ③ 학생의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④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도 중요하지만 여러 지식을 종합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 ⑤ 협동심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각종 경시대회를 많이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보기>를 활용하여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 탐구하고자 할 때,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국어에서 받침으로 쓸 수 있는 자음은 대표음 일곱 개뿐이다. 이 외의 자음이 음절 끝에 오면 그것은 일곱 자음 중의 하나로 바뀌어 발음된다. 이는 소리 나는 자리가 같은 자음들이 음절의 끝에서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바뀌는 현상이다.

발음 환경	발음 사례
○ 음절의 끝 또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 앞인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밖[박], 앞[압] • 옷[온], 있(고)[인(꼬)] • 낮[남], 낮[남], 낮[남], 허용[허은] • 옷이[오시], 꽃을[꼬츨], 밭에[바테] • 값이[갑시], 쌀고[할꼬], 앓고[안꼬], 밭지[밭찌], 넓어[널버] • 부엌 안[부어간], 잎 위[이뷔], 옷 안[오단]
○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되는 경우 ㉡ (단, ㅎ받침은 제외)	
○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등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 ㉢	

- ① ㉠ - ‘ㄱ, ㅋ, ㆁ’은 대표음 [ㄱ]으로, ‘ㄴ, ㄷ’은 대표음 [ㄴ]으로 발음된다.
- ② ㉠ - ‘ㅏ, ㅑ’은 ‘ㅓ, ㅕ, ㅗ, ㅛ’와 마찬가지로 대표음 [ㅓ]으로 발음된다.
- ③ ㉡ - 홑받침으로 쓰인 자음은 음가를 살려 뒤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한다.
- ④ ㉡ - 겹받침의 경우, ‘ㄴ, ㄷ, ㄹ, ㄹ, ㄴ’은 첫째 자음이 발음되고, ‘ㄹ, ㄹ’은 불규칙적으로 발음된다.
- ⑤ ㉢ -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여 대표음으로 바꾸고,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4. <보기>의 ㉠~㉣을 고쳐 쓰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보 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연인들이 강가에서 데이트를 할 때 물수제비를 ㉠ 띄우는 장면이 흔히 등장하곤 한다. 영화나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보면 성공적인 데이트를 위해서는 물수제비를 잘 하는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

2004년 저명한 과학 잡지인 『네이처』에 프랑스 과학자 크리스토퍼 클라네 박사의 물수제비 관련 논문이 실렸다. 이 논문에 따르면, 물수제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한다. 먼저 둥글고 납작한 지름 5cm의 돌이 있어야 하고, 돌과 수면의 각도는 20도를 유지해야 하며, 초속 2.5m 이상의 속도로 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과학자가 물수제비에 관심을 갖는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는가?

우주선이 지구로 귀환하기 위해서는 지구를 둘러싼 대기권으로 ㉡ 진입할 수 있다. 우주선이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순간의 상황이 돌맹이가 수면에 닿는 순간의 상황과 비슷하다. 계산을 잘못했다가는 우주선이 대기권에 거대한 물수제비 무늬를 남기며 튕겨나갈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주 과학자들은 이를 막기 위해 물수제비 현상을 연구하고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다.

㉢ 그러므로 항공 공학에서는 물수제비의 원리를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비행기가 40km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하강하면서 대류권과 만나면 물수제비처럼 통통 튀어 목적지로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한다. 이론적으로는 시카고에서 로마까지 72분 만에 갈 수 있다니 실제로 가능하다면 연료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사실 과학자들이 물수제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40년대부터다. 우주 과학과 항공 공학에서 물수제비에 대한 연구가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작은 돌맹이 하나가 보여주는 묘기가 놀라운 과학적 아이디어로 변하는 순간을 생각하면 ㉣ 웬지 짜릿하지 않은가!

- ① ㉠은 어휘가 부적절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띄는’으로 고쳐야겠어.
- ② ㉡은 호응 관계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진입해야 한다.’로 고쳐야겠어.
- ③ ㉢은 앞뒤 단락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반면에’로 바뀌어야겠어.
- ④ ㉣은 논지 전개 of 일관성을 위해 셋째 단락 첫머리에 넣어야겠어.
- ⑤ ㉣은 논리적 비약이 심하므로 ‘허무맹랑하지 않은가!’로 고쳐야겠어.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어다 보니
 아주 캄캄한 밤,
 *어험스런 뜰 앞 잣나무가 자꾸 커올라간다.
 돌아서서 자리로 갔다.
 나는 목이 마르다.
 또, 가까이 가
 유리를 입으로 쪼다.
 아아, 항 안에 든 금붕어처럼 갑갑하다.
 별도 없다, 물도 없다, 휘파람 부는 밤.
 소증기선처럼 흔들리는 창.
 ㉠ 투명한 보랏빛 *누리알 아,
 이 알몸으로 끄집어 내라, 때려라, *부룻내라.
 나는 열이 오른다.
 뺨은 차라리 연정스레이
 유리에 비빈다, 차디찬 입맞춤을 마신다.
 쓰라리, 아련히, *긋는 음향 —
 머언 꽃!
 ㉡ 도회에서 고운 화재가 오른다.

- 정지용, 「유리창 2」

* 어험스런 : 짐짓 위엄 있어 보이는 / * 누리알 : 우박알
 * 부룻내라 : 부서뜨려라 / * 긋는 : 끊어지다. 그치다.

(나) 어찌랴, 하늘 가득 머리 풀어 울고 우는 빗줄기, 뜨락에 와 가득히 당도하는 저녁나절의 저 음험한 비애의 어깨들 오, 어찌랴, 나 차가운 한잔의 술로 더불어 혼자일 따름이로다 뜨락엔 작은 나무의자 하나, 깊이 젖고 있을 따름이로다 전 재산이로다

어찌랴, 그대도 들리시는가 귀 기울이면 내 유년의 캄캄한 늪에서 한 마리의 이무기는 살아남아 울도다 오, 어찌랴, 때가 아니로다, 때가 아니로다, 온 국토의 별판을 기일게 기일게 혼자서 건너가는 비에 젖은 소리의 뒷등이 보일 따름이로다

어찌랴, 나는 없어라 그리운 물, ㉢ 설설설 끓이고 싶은 한 가마솥의 뜨거운 물, 우리네 아궁이에 지피어지던 어머니의 불, 그 잘 마른 삭정이들, 불의 살점들 하나도 없이 오, 어찌랴, 또다시 나 차가운 한잔의 술로 더불어 오직 혼자일 따름이로다 전 재산이로다, 비인 집이로다, 들판의 비인 집이로다 하늘 가득 머리 풀어 빗줄기만 울고 울도다

- 정진규, 「들판의 비인 집이로다」

(다) 거기 나무가 있었네.
 노을 속엔 / 언제나 기러기가 살았네.
 붉은 노을이 금관 악기 소리로 퍼지면
 거기 나무를 세워두고 / 집으로 돌아오곤 했었네.
 ㉣ 쏟아져 내리는 은하수 하늘 아래
 창문을 열고 바라보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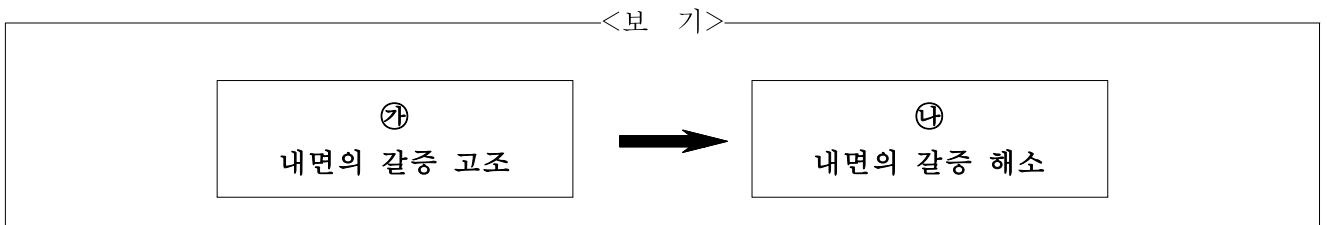
발뒤축을 들고 바라보았네.
 거기 나무가 있었네.
 희미한 하류로 / 머리를 두고 잠이 들었네.
 나무가 아이의 잠자리를 찾아와
 가슴을 다독여 주고 돌아가곤 했었네.
 거기 나무가 있었네.
 일만 마리 매미 소리로 / 그늘을 만들어 주었네.
 모든 대답이 거기 있었네.
 그들은 백사장이고 시냇물이었으며
 빨기풀이고 뜸부기 알이었네.
 거기 나무가 있었네.
 이제는 무너져 흩어져버렸지만
 등치마저 타버려 재가 돼 버렸지만
 © 금관 악기 소리로 퍼지던 노을
 스쳐가는 늦 기리기 몇 마리 있으리
 귀 기울이고 다가서 보네.
 까마득한 하류에 나무가 있었네.
 거기 나무가 있었네.

- 이견청, 「하류」

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와 (나)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내면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회상하는 방식을 통해 과거의 추억을 묘사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시구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가)~(다) 모두 역설적 기법을 통해 심화되는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⑤ (가)~(다) 모두 현재와 과거의 대비를 통해 현재의 결핍을 노래하고 있다.

6. (가)의 시상 전개를 <보기>와 같이 정리했을 때, 이와 관련지어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안과 밖을 차단하는 ‘유리’의 속성은 ㉠과 관련이 있다.
- ② 유리창 밖 공간이 ㉠과 관계된다면, 유리창 안 공간은 ㉡와 관계된다.
- ③ ‘마르다’는 시어는 ㉠과 관련이 있고, ‘마신다’는 시어는 ㉡와 관련이 있다.
- ④ 시적 화자가 뺨을 유리에 비비는 행위는 ㉠에서 ㉡로의 이행과 관련이 있다.
- ⑤ ‘쓰라리’라는 시어로 보아,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통해 ㉡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

7. (가)~(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가)에서 ‘별’도 없는 ‘깜깜한 밤’은 화자의 답답한 내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② (나)에서 ‘들판의 비인 집’은 홀로 지내는 화자의 쓸쓸한 내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③ (나)에서 ‘머리 풀어 울고 우는 빗줄기’는 슬픔으로 가득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④ (다)에서 ‘그늘’을 만들어 주는 ‘나무’는 안식처를 갈망하는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⑤ (다)에서 ‘기러기’가 살았던 ‘붉은 노을’은 세월의 무상함을 탄식하는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8. ㉠~㉡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2점)

<보 기>

시인은 대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마음속에 그려지는 영상을 흔히 감각적 시어로 형상화한다. 그 중 공감각적 표현이란, 한 종류의 감각을 다른 종류의 감각으로 전이(轉移)시켜 표현하는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돌이든 나무든 무슨 재료든 ㉠ 조각은 일단 깎아내는 행위에서 출발한다. 무심한 돌덩이를 깎아 마치 피가 도는 듯한 인물 형상 등을 창조하는 것이 조각의 경이로운 연금술이다. 영국의 추상조각가 헵워스(Hepworth)는 자연의 이런저런 형상들을 단순히 모방하거나 재현하는 ㉡ 조각이 아닌, 인간의 저 깊은 정신을 특정한 꼴로 깎아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자신의 친구인 문예비평가 허버트 리드(Herbert Read)에게 물었다. 요약하자면 ㉠ ‘정신을 재료에 일치시키는 조각(彫刻)’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런데 리드는 뜻밖에도 『장자(莊子)』를 인용해 대답했다. 그것은 『장자』의 「달생(達生)」편에 나오는 재경이란 인물의 우화였다. 이 사람은 요셋말로 목(木)공예가에 해당하는 뛰어난 기술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 조각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우선 나무를 찾아 깎기 이전에 며칠간 마음을 차분한 상태로 가라앉힌다. 한 사흘 기(氣)를 모으면 남들이 잘 한다 칭찬하거나 상(賞)을 준다는 말에 현혹되지 않는다. 덧새가 지나면 또 남이 형편없다고 헐뜯거나 욕하는 소리에도 무감해진다. 이레가 되는 날은 내 손발이나 모습까지 완전히 잊게 된다. 바로 이때 내가 쓸 나무를 찾아 산으로 간다. 손도 발도 몸뚱이도 다 잊었으니 그저 내 마음만 남아 나무의 마음과 서로 통할 수밖에 없다.

[A] 이 정도가 되면 그가 깎는 나무는 벌써 자아와 분리된 대상이 아니다. 제 마음을 술술 빚어내는 무아(無我)의 유희로 몰입한 셈이다. 그러면서 허버트 리드는 “자연 속의 천명(天命)이 인간의 천명과 합일하는 행위”라는 다소 고답적(高踏的)인 말로 조각과 정신의 조화를 설명했다. 조각가가 모자(母子)상을 빚어냈으되 그것이 단순히 어머니와 자식의 형상만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조각이 되거나, 도통 어떤 모양인지 말로 잘 표현되지 않는 추상 조각이 그 작가의 속 깊은 내면을 대변하게 되는 것 역시 그런 과정을 겪고 탄생하는 것이다.

[12~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황만근이 없어졌다.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간 황만근은 늘 들일을 나가면 돌아오는 시각인 저물녘에 돌아오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취하더라도 열두 시가 될락말락한 한밤이면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아니었다. 평생 단 하루 외박한 뒤 돌아왔던 그 시각, 햇대의 닭이 울음을 그치는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회관 앞, 황만근이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직접 짠 평상에 사람들이 모였다. 먼저 이장이 입을 열었다.

“만그인지 반그인지 그 바보자식 하나 때문에 소 여물도 못하러 가고 이기 뭐라. 스무 바리나 되는 소가 한꺼분에 밥 굶는 기 중요한가, 바보자식 하나가 어데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기 중요한가, 씨그랄.”

마을에서 연장자 축에 들고 가장 학식이 높아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용왕제(龍王祭)에 *축(祝)을 초(草)하는 황제석씨가 받았다.

“그래도 질래 있던 사람이 없어지마 필시 연유가 있는 기라. 사람이 바늘이라, 모래라. 기양 없어지는 기 어디 있어.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이라. 반그이, 아이다. 만그이가 여계서 나서 사는 동안 한분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라.”

“아이지요. 어르신. 가가 군대 간다 했을 때 여운지 토깨인지하고 밤새도록 싸우니라고 하루는 안 들어왔심다.”

용왕제에서 집사 역을 하는 황동수가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다. 아침밥을 먹기도 전 황만근의 아들이 찾아와 황만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열걸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민씨는 분위기가 어찌 이상하게 돌아간다 생각하고 참견을 했다.

“어제 췌기대회 한다 하고 간 사람이 누구누구십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췌기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씨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사람이라고 밋밍이나 되나. 군 전체 사람이 모도 모있다는 기 백밍이 될라나 말라나 한테 반그이는 돼지고기 반 근만해서 그런지 안 보이더라칸께.”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듯 말을 이었다. 민씨는 이장이 췌기대회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네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제 밤에 내일 췌기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한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이장은 민씨를 흘기듯 노려보았다.

“왜, 농민보고 농민 췌기대회 꼭 나오라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민씨는 자신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되었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까.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뭐라 카는 기라.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부채 탕감촉구 전국 농민 총췌기대회가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 카는데 뭐가 잘못됐다 말이라.”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나 하는 겁니다.”

“내가 아나. 읍에 가보이 장날이더라고. 보나마나 어데서 술 처먹고 주질러앉았을 끼라. 백릿길을 경운기를 끌고 갔으이 시간도 마이 걸릴 끼고.”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민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는 꼴이 되어버렸다.

<중략>

그러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황만근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동네 사람 누구든 하루

이틀, 또는 한두 달 집을 비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황만근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모든 사람이 그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누구도 적극적으로 황만근을 찾아 나서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있으나마나한 존재이면서 있었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면서 지금처럼 없기도 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했다. 두어 해 전에야 신대 1리로 들어와 황만근의 탄생과 성장, 삶을 처음부터 지켜보지 못한 민씨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마을에서 젊은 축에 드는 마흔다섯 살의 황영석은 황만근이 벽돌을 찍고 구덩이를 파서 지은 마을 회관 변소에서 분노를 퍼내면서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만그이 자석이 있었으마 내가 돈을 백만 원 준다 캐도 이런 일을 안할 낀데. 아이구, 이 망할 놈이 똥냄새, 여리가 싸놔 그런지 독하기도 하네. 이기 곡석한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도 모르겠구마.”

황만근이 있었으면 군말 없이 했을 일이었다. 늘 그렇듯이 병글병글 웃으면서.

“만그이가 있었으모 저 거름이 우리 밭으로 올 낀데. 만그이가 도대체 어데 갔노.”

마을회관 곁 조그만 밭에 채소를 심어 먹는 여씨 노인도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황만근은 마을 공통의 분노를, 역시 자신이 판 마을 공통의 분노장으로 가져가서 충분히 익힌 뒤에, 공평하게 나누어주었다. 황영석처럼 제가 똥다고 바로 제 밭에 가져다가 뿌리지는 않았다. 특히 여씨 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잣말이 된 노인들에게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더 자주 거름을 가져다 주었다.

“만그이한테 물어보자.”

아이들은 소꿉장난을 하다가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공평무사한 것이 황만근의 평생의 처사였다. 그에게는 판단 능력이 없는 듯했지만 시비를 물으러 가면, 가노라면 언제나 공평무사한 자연의 이법에 대해 깨우치게 되고 분쟁은 종식되었다.

-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 축(祝)을 초(草)하다 : 제사 때 읽는 축문의 초안을 잡다.

12.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빠른 장면 전환을 통해 사건 전개에 긴박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대사를 통해 초점이 되는 인물에 대한 다양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③ 1인칭 시점을 사용하여 주인공 자신이 체험한 바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④ 액자식 구성을 통하여 하나의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배경을 서정적으로 묘사하여 농촌의 풍요로운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13. 위 글에 나타나는 인물 간의 갈등 구조를 파악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민씨는 황만근을 옹호하는 편에 서 있다.
- ② 갈등을 빚는 주된 인물은 민씨와 이장이다.
- ③ 갈등의 발생 원인은 황만근의 부재와 관련이 있다.
- ④ 이장은 오래 전에 황만근과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
- ⑤ 황재석과 황동수 사이에는 직접적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

14. 위 글과 <보기>를 읽고 난 후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황만근, 황 선생은 어리석게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해가 가며 차츰 신묘한 지혜가 돌아왔다.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듯이 덮어 주고 땅이 은혜롭게 부리를 대어 알껍질을 까 주었다. 그리하여 후년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듯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하여 늘 부지런하고 근면하였다. 사람들이 빗만 남는 농사에 공연히 뼈를 상한다고 하였으나 개의치 아니하였다.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 하였고 공에는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했다. 하늘이 내린 효자로서 평생 어머니 봉양을 극진히 했다. 아들에게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였고 훈육을 할 때는 알아듣기 쉽게 하여 마음으로 감복시켰다…….

단기 사천삼백삼십년 오월 스무날

본디 묘지에나 쓰일 것이지만 천지를 대영혼의 집으로 삼은 선생인지라 아무 쓸모도 없는 이 글을, 새터말로 귀농하였다가 이룬 것 없이 다시 도시로 흘러가며, 남해인 민순정이 엮으려 쓰다.

- ① 곁으로 보기에 어수룩해 보이더라도 황만근 같은 삶이야말로 남에게 귀감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
- ② 황만근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성실히 다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어.
- ③ 황만근과 같이 자신을 아끼는 마음이 강한 사람은 남에 의해 아픔을 겪게 되는 경우도 많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
- ④ 비록 가난하더라도 황만근과 같이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 ⑤ 마을 사람들을 위해 앞장서는 황만근의 모습에서 큰 공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희생정신이 강해야겠다는 점을 배우게 되었어.

15. 위 글을 영화로 제작하려고 할 때, 장면 구성에 대한 적절한 의견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2점)

- ① 민씨가 이장에게 따지는 장면에서는 이장의 불만스러운 표정을 클로즈업하여 보여주는 것이 좋을 거야.
- ② 황만근이 새벽에 경운기를 타고 군청으로 떠나는 장면에서는 경운기가 점차 멀어지도록 처리하는 것이 좋겠어.
- ③ 이장이 황만근을 따로 불러 이야기하는 장면에서는 민씨가 이를 우연히 보게 되는 장면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어.
- ④ 마을 사람들이 여러 장소에서 황만근을 찾는 장면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화면을 분할하여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
- ⑤ 여씨 노인이 황만근에 대해 말하는 장면에서는 황만근이 마을 사람들에게 분노를 나눠주는 장면을 오버랩하여 보여주는 것이 좋겠어.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덩하 돌하 당금(當今)에 계상이다.
 덩하 돌하 당금(當今)에 계상이다.
 선왕성티(先王聖代)에 노니으와지이다. (1연)

*삭삭기 세물애 별헤 나눈
 삭삭기 세물애 별헤 나눈
 구은 밤 닷 되를 심고이다.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유덕(有德)흐신 님 여히으와지이다. (2연)

<중략>

므쇠로 한쇼를 디여다가
 므쇠로 한쇼를 디여다가
 털슈산(鐵樹山)에 노호이다.
 그 쇠 털초(鐵草)를 머거아
 그 쇠 털초(鐵草)를 머거아
 유덕(有德)흐신 님 여히으와지이다. (5연)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긴히든 그츠리잇가
 즘른 히를 외오곰 녀신들
 즘른 히를 외오곰 녀신들
 신(信)잇든 그츠리잇가. (6연)

- 작자 미상, 「정석가(鄭石歌)」

* 삭삭기 세물애 : 바삭바삭한 가는 모래

(나) 나무 도막으로 당닭을 깎아
 젓가락으로 집어 벽에 앉히고
 이 새가 꼬끼오 하고 때를 알리면
 어머니 얼굴은 비로소 서쪽으로 기우는 해처럼 늙으시리.

木頭雕作小唐鷄(목두조작소당계)
 筋子拈來壁上棲(근자넌래벽상서)
 此鳥膠膠報時節(차조교교보시절)
 慈顏始似日平西(자안시사일평서)

- 문충, 「오관산요(五冠山謠)」

(다) 개야미 불개야미 준등 부러진 불개야미,

압발에 정종나고 뒷발에 종귀 난 불개야미, 광릉(廣陵) 심재 너머 드리 *가람의 허리를 ㄹ르 무려 추혀 들고 북해(北海)를 건너닷 말이 이셔이다.

님아 님아. 온 놈이 온 말을 흐여도 님이 짐작흐쇼셔.

-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

* 가람 : 호랑이. 최호랑이인 '갈범'에서 온 말

16.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과장된 표현을 통해 대상의 영원성을 기원하고 있다.
- ②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반복과 열거를 통해 시적 화자의 결연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④ 화자의 심정을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⑤ 풍자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당대의 부조리한 세태와 각박한 인심을 비판하고 있다.

17. (가)에 대해 <보기 1>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기 2>와 같이 추론하였다고 할 때,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은? (3점)

— <보기 1> —

제 1연에서 '덩'과 '돌'은 악기 소리를 나타낸 의성어로 보기도 하고, 각각 정(鉦-징)과 석(石-경쇠)이라는 악기를 의인화하여 연정의 대상인 '정석(鄭石)'이라는 인물을 나타낸 것으로 보기도 한다. 특히 제 1연의 내용은 임금의 덕을 칭송하고 태평성대를 노래한 전체의 서연(序聯)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나머지 연과 내용상의 연관성이 긴밀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의식요(儀式謠)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이 노래의 결련(結聯)인 제 6연은 사랑하는 임과의 영원한 신의와 사랑을 강조한 내용으로 같은 고려속요인 '서경별곡'의 제 2연과 그 내용이 동일할 뿐 아니라, 이제현의 '소악부'에도 한역(漢譯)되어 전한다.

— <보기 2> —

- ㄱ. 이 노래의 제목인 '정석가'는 1연의 '덩'과 '돌'의 악기 이름에서 차자(借字)한 것이라 볼 수도 있겠군.
- ㄴ. 우리 문학에 끼친 한문학의 영향을 고려해보면 이 작품도 한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할 수 있겠어.
- ㄷ. 이 노래의 1연은 내용상 나머지 연과 동떨어진 것으로 보아, 나중에 궁중 음악으로 편입되면서 삽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ㄹ. 이 노래의 6연은 먼저 궁중에서 불리다가, 구비 문학의 특성 상 구전의 과정에서 여러 작품에 차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가)~(다)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의 ‘한쇼’와 (나)의 ‘당답’은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가)의 ‘털초’와 (나)의 ‘해’는 화자가 소망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 ③ (가)의 ‘삭’과 (나)의 ‘젓가락’은 화자의 태도가 변화하는 계기로 볼 수 있다.
- ④ (가)의 ‘구슬’과 (나)의 ‘가람’은 시적 화자의 분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나)의 ‘꼬끼오’와 (다)의 ‘온 말’은 문맥상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19.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다)와 가장 가까운 것은? (2점)

- ① 저재 너러신고요. / 어기야 즌 디를 드디올세라. / 어느이다 노코시라. / 어기야 내 가는 디 점그를 세라.
 - 작자 미상, 「정읍사(井邑詞)」
- ② 유월(六月)스 보로매 아으 별해 브론 빗 다호라. / 도라보실 니를 적곰 좃니노이다. / 아으 동동(動動)다리.
 - 작자 미상, 「동동(動動)」
- ③ 과(過)도 허물도 천만(千萬) 업소이다. / 물헛마리신더 / 술웃븐더 아으 / 니미 나를 험마 니즌시니 잇가. /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 정서, 「정과정(鄭瓜亭)」
- ④ 어름 우희 땃넙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러 주글만덩 / 어름 우희 땃넙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러 주글만덩 / 정(情) 둔 오늬밤 더디 새오시라 더디 새오시라.
 - 작자미상, 「만전춘별사(滿殿春別詞)」
- ⑤ 기왕(岐王)스 집 안해 상네 보다니, / 최구(崔九)의 집 알피 몇 디월 드리노. / 정(正)히 이 강남(江南)에 풍경(風景)이 도흐니, / 곳 디는 시절(時節)에 쏘 너를 맛보과라.
 - 두보, 「강남봉이구년(江南逢李龜年)」

21. 위 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전에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 학문적 적자(嫡子)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천동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 현상이 다양하게 발견되면서 천동설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16세기 중엽에 이르러 코페르니쿠스는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원운동을 한다는 지동설을 주장하게 된다. 기원전 3세기에 아리스타쿠스에 의해 지동설이 제기되었으나, 당시에는 천동설로 항성과 행성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무시되었다. 천동설에서 벗어나는 몇몇 이상 현상은 계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순 오차 정도로 치부되거나 복잡하지만 어떻게든 천동설로 설명하려 했던 것이다. 반면 계속된 이상 현상들의 발견으로 인해 과학자들의 학문적 위기 위식이 팽배하던 시기에 제기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천동설을 몰아내고 학문적 적자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

- ① 아무리 확고하게 느껴지는 과학적 이론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겠군.
- ② 프루시너의 주장도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처럼 학계에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이후에야 인정을 받기 시작했겠군.
- ③ 코페르니쿠스 이전에도 천동설로 설명할 수 없었던 이상 현상이 있었던 것처럼, 프루시너의 ‘프리온’ 발견 이전에도 이런 이상 현상이 있었군.
- ④ ‘프리온’을 처음 접한 대부분의 과학자들도 처음에는 아리스타쿠스의 지동설을 접한 기원전 3세기의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반응을 보였을 거야.
- ⑤ 코페르니쿠스 이후 몰락한 천동설처럼, 세포의 핵산에서 단백질을 합성하고 자기 증식을 한다는 기존 이론은 프루시너 이후에 더 이상 인정받지 못했을 거야.

22.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환경의 변화로 유전 정보가 변하는 것을 방지하는 요소일 수 있다
- ② 개체의 생존이 유리하도록 환경을 변화시키는 유전 인자일 수 있다
- ③ 환경에 따라 변화된 형질이 유전되지 못하도록 막는 요소일 수 있다
- ④ 핵산이 없는 단백질임에도 스스로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요소일 수 있다
- ⑤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개체의 진화력을 높이는 유전 인자일 수 있다

23. ㉠에 쓰인 ‘뒤-’의 의미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2점)

- ① 뒤끓다 ② 뒤엎다 ③ 뒤엎다 ④ 뒤틀다 ⑤ 뒤섞다

[24~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으리라. 피타고라스 학파는 사실 학파라기보다 오르페우스(Orpheus)교라는 신비주의 신앙을 가진 하나의 종교 집단이었다 한다. 그들은 매우 엄격한 종교적 계율을 지켰고, 무엇보다 영혼의 윤회를 믿었다. 피타고라스가 살던 당시 그리스에서는 막 철학적 사유가 싹트고 있었다. 당시 철학계에서는 이 세상의 다양한 사물과 변화무쌍한 현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어떤 ‘근본적인 것(arkhe)’을 찾는 것이 유행이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물’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불’이라 했다. 그런데 피타고라스는 특이하게도 그런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 곧 ‘수(數)’가 만물의 근원이라고 ㉠ 생각했다.
- (나) 피타고라스가 신봉하던 오르페우스는 인류 최초의 음악가였다. 때문에 피타고라스 교단이 음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은 물론 음악에서도 수적 비례를 찾아냈다. 아니, 음악이야말로 오히려 수적 비례 관계가 가장 순수하게 나타나는 영역이 아닌가. 음의 높이는 현(絃)의 길이와의 비례 관계로 설명된다. 현의 길이를 1/3만 줄이면 음은 정확하게 5도 올라가고 반으로 줄이면 한 옥타브 올라간다. 여러 음 사이의 수적 비례는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낸다.
- (다) 이 신비주의자들이 밤하늘에 빛나는 별의 신비를 그냥 지나쳤을 리 없다. 하늘에도 수의 조화가 지배하고 있다. 별은 예정된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일정한 시간에 나타나 일정한 시간에 사라진다. 그래서 그들에게 별의 움직임은 리드미컬한 춤이었다. 재미있게도 그들은 별들이 현악기 속에 각자의 음을 갖고 있다고 믿었다. 그렇다면 천체의 운행 자체가 거대한 교향곡이 아닌가. 그 당시는 비유가 논증의 방식이었다. 때문에 우주의 조화는 음의 조화, 곧 아름다운 화음으로 여겨졌다. 마침내 밤하늘엔 춤추는 별들이 어우러져 장엄한 음악이 울려 퍼졌다. 피타고라스 교단의 교리에 도통한 사람은 이 우주의 음악을 들을 수 있었다 한다. 과연 그 소리가 어땠을까?
- (라) ㉡ 아득한 옛날,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태도로 자연과 세계를 대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에 생명이 있다고 믿었고, 그 생명들과 언제든지 교감할 수 있었다. 무정한 밤하늘에서조차 그들은 별들이 그려내는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별들이 연주하는 장엄한 음악을 들었다. 상상해 보라. 시시각각 움직이는 밤하늘의 거대한 형상들, 별자리의 인물들이 펼치는 극적인 이야기들, 울려 퍼지는 교향곡을…….
- (마)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불행하게도 세계를 이렇게 느끼길 그만두었다. 다시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는 없을까? 물론 그럴 수는 없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삶의 한구석엔 고대인들의 심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여기서는 아직도 그들처럼 세계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 바로 예술의 세계다.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다. “내가 타죽은 나무가 내 속에서 자란다 / 나는 죽어서 / 나무 위에 / 조각달로 뜬다…… 저 먼 우주의 어느 곳엔가 / 나의 병을 앓고 있는 별이 있다.”
- (바) 시인은 피타고라스가 우러르던 바로 그 하늘을 본다. 그는 자연과 윤회의 끈으로 생명을 주고받고, 빛의 속도로 달려도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머나먼 우주와 교감한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난 나무도 아니고 조각달도 아니다. 내가 아는 한, 별은 병을 앓을 수 없다. 더구나 내 병을 대신 앓다니. 하지만 이 거짓말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왜? 우린 왜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믿고 싶을까? 인류가 까마득한 과거 속에 물어버린 이 환상이, 왜 아직도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24.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점)

- ① 현의 길이를 조절함으로써 음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다.
- ② 천체의 운행과 우주의 조화는 수적 비례 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
- ③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더 이상 자연이나 우주와 교감할 수 없게 되었다.
- ④ 피타고라스 학파는 당시 그리스 철학계의 유행을 따르지 않는 신비적인 집단이었다.
- ⑤ 고대 그리스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흔히 비유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25. 위 글이 어떤 책의 서문이라고 했을 때, 책의 핵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인류의 삶에서 예술이 가지는 의의
- ② 만물의 근원에 대한 철학적·종교적 고찰
- ③ 그리스 철학과 동양 불교의 사상적 연관성
- ④ 예술 작품 속에 적용된 다양한 수학의 원리
- ⑤ 서양 예술의 발전에 끼친 그리스 철학의 영향

26. 글의 흐름으로 보아, <보기>의 글이 들어갈 곳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보 기>

세상의 모든 것은 수로 표시된다. 수를 갖지 않는 사물은 없다. 그러면 모든 것에 앞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수가 아닌가. 수는 모든 것에 앞서 존재하며 혼돈의 세계에 질서를 주고 형체 없는 것에 형상을 준다. 따라서 수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존재의 가장 깊은 비밀을 탐구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 연구는 피타고라스 교단에서 지켜야 할 계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 ① (가)의 뒤
- ② (나)의 뒤
- ③ (다)의 뒤
- ④ (라)의 뒤
- ⑤ (마)의 뒤

27.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3점)

- ① 내 건강을 생각해 주니 정말 고맙다.
- ② 그는 늘 큰 집을 가졌으면 하고 생각했다.
- ③ 나는 그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 ④ 네 사정을 생각해서 더 이상 다그치지 않겠다.
- ⑤ 그는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고향 마을을 생각했다.

28. ㉡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훨훨 나는 저 피꼬리는 / 암수 다정히 노니는데, / 외로울사 이 내 몸은 / 뉘와 함께 돌아가리.
- 유리왕, 「황조가(黃鳥歌)」
- ② 임금은 아버지요, / 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요, / 백성은 어린 아이라고 한다면 / 백성들이 나라의 사랑을 알 것입니다.
- 충담사, 「안민가(安民歌)」
- ③ 붉은 바위 가에 / 잡고 있는 암소를 놓게 하시고 /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신다면 / 꽃을 꺾어 바치 겠나이다.
- 견우노옹, 「헌화가(獻花歌)」
- ④ 호미도 놀히언마르논 / 난가티 들 리도 업스니이다. / 아바님도 어이어신마르논 / 어마님ㄷ티 피시 리 업세라.
- 작자 미상, 「사모곡(思母曲)」
- ⑤ 거북아, 거북아. 수로를 내 놓아라. / 남의 아내 앓았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큰가. / 네 만약 거스르고 내놓지 않는다면, / 그물로 너를 잡아서 구워 먹으리라.
- 작자 미상, 「해가(海歌)」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웃에 장씨(張氏) 성을 가진 자가 살았다. 그가 집을 짓기 위하여 나무를 베려고 산에 갔는데, 우거진 숲속의 나무들을 다 둘러보아도 대부분 꼬부라지고 뒤틀려서 쓸 만한 것이 없었다. 그러다 산꼭대기에서 한 그루의 나무를 발견하였는데, 정면에서 바라보나 좌우에서 바라보나 분명히 곧았다. 쓸 만한 재목이다 싶어 도끼를 들고 다가가 뒤쪽에서 바라보니, 형편없이 굽은 나무였다. 이에 도끼를 버리고 탄식하였다.

“아, 재목으로 쓸 나무는 보면 쉽게 드러나고, 가름하기도 쉬운 법이다. 그런데 이 나무를 내가 세 번이나 바라보고서도 재목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러니 겉으로 후덕해보이고 인정 깊은 사람일 경우 어떻게 그 본심을 알 수 있겠는가. ㉠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하고 얼굴을 보면 선량해보이고 세세한 행동까지도 신중히 하므로 우선은 군자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막상 큰일을 당하거나 중대한 일에 임하게 되면 본색이 드러나고 만다.

나무가 자랄 때 짐승에게 짓밟히거나 도끼 따위로 해침을 받은 일도 없이 오로지 이슬의 덕택에 날로 무성하게 자랐으니, 마땅히 굽은 데 없이 곧아야 할 텐데 꼬부라지고 뒤틀려서 이다지도 쓸모 없는 재목이 되고 말았다. 하물며 요즘 같은 세상살이에 있어서랴. 물욕이 진실을 어지럽히고 이해(利害)가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천성을 굽히고 당초에 먹은 마음에서 떠나고 마는 자가 헤아릴 수 없으니, 속이는 자가 많고 정직한 자가 적은 것을 괴이하게 여길 일도 아니다.”

이 생각을 내게 전하기에 나는 이렇게 말해주었다.

“그대는 정말 잘 보았다. 『서경(書經)』 「홍범(洪範)」 편에 오행(五行)을 논하면서, 나무를 곡(曲)과 직(直)으로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나무가 굽은 것은 재목감은 안 될지 몰라도 나무의 천성으로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건대, 이 세상에서 굽은 나무는 아무리 서투른 목수일지라도 가져다 쓰지 않는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잘 다스려지는 세상에서도 버림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대는 큰 집의 구조를 살펴보라. 들보와 기둥, 서까래와 각목이 수없이 많이 얽혀서 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굽은 재목은 보지 못할 것이다. 반면 조정 대신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공경과 대부 그리고 사(士)가 예복을 갖추어 입고 조정에 드나드는데, 그 중 정직한 도리를 간직하고 있는 자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보면 굽은 나무는 항상 불행을 겪고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자가 항상 행운을 잡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장유, 「곡목설(曲木說)」

(나) 나무는 클수록 좋다. 그리고 늙을수록 좋다. 잔가지에 꽃이 피거나, ㉡ 열매가 열어 휘어짐에 그 한두 번 바라볼 만한 아취(雅趣)를 모름이 아니로되, 그렇게 내가 쓰다듬어 줄 수 있는 나무보다는 나무 그것이 나를, 내 집과 마당까지를 폭 덮어주어 나로 하여금 한 어린 아이와 같이 똥그래진 눈으로, 늘 내 자신의 너무나 작음을 살피며 ㉢ 겸손한 마음으로 그 밑을 거닐 수 있는 한, 뗏부리처럼 높이 솟은 나무가 그리운 것이다.

현인(賢人) 장자(長者)들이 살던 마을이나 그들이 거닐던 마당에는 흔히 큰 나무들이 선 것을 본다. 온양에 이 충무공이 사시던 마을에도 그가 활 쏘던 언덕이라는 데 절벽과 같이 흰칠히 솟은 두채의 은행나무가 반은 고목이 되어 선 것을 보았다. 나는 충무공이 쓰시던 칼이나 활이나 어느 유품에서보다 그 한 쌍 은행나무에 더 반갑고 더 고개가 숙여졌다.

늙기는 하였으며 아직 살기는 한 나무였다. 말이야 있건 없건 충무공과 더불어 한때를 같이한 것으로 아직껏 목숨을 가진 자—그 두 그루의 은행나무뿐이다. 나무는 긴 세월을 보내며 자랄 대로 자랐다. 워낙 선 곳이 언덕이라 여간 팔심으로는 팔매를 쳐 그 어느 나무의 상가지도 넘길 것 같지 않았다. 이렇게 높고 우람한 거목이기 때문에 좋았다. 아무리 충무공이 손수 심으신 것이라 하여도

[33~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들은 왜 글을 쓰는 것일까. 여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자기의 사상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거나, 자기의 삶, 자기의 인생을 깨끗하게 하고 영혼을 아름답게 한다거나, 인격 도야(陶冶)에 뜻을 둔다거나 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일기문을 제외하고 보통 글이라면 다른 사람이 읽는 것을 전제로 하여 쓴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타인이 읽기 쉬운 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이란 어떠한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적합한 언어 조립으로서 수사학적 표현의 기술이 요구된다. ‘표현의 기술’, 그것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혜택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쓰고 싶은 글을 거침없이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물론 동물들도 자기들끼리 통하는 언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 사회에서처럼 보존이 가능한 문자 언어일 수도 없고, 표현 기술이 가능한 예술적 언어일 수도 없다. 언어를 거침없고 막힘없이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마음이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문장 표현의 기술, 즉 적합한 언어를 적합한 자리에 끼워 넣는 연습이 필요하다.

글쓰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보다 적합한 언어를 찾아내어 효과적으로 글을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적합한 언어를 찾아낸다는 것은 마치 기계를 조립할 때 알맞은 부속품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 글쓰기는 문득 떠오르는 하나하나의 생각들 가운데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과정을 거친다. 여기에서 소재가 모든 경험의 산물이라면, 제재는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져온 경험의 부스러기라 하겠다. 결국 글쓰기란 경험 또는 체험이라는 부속품들의 취사선택을 거쳐서 하나의 기계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과 흡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기묘한 생각들이 떠오르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과 생각들은 구체적인 문장 형태를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 된다. 이것은 마치 부화의 과정에서 계란의 노른자에 피가 돌고 날개가 생기게 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어떤 착상(着想)이 떠오르면 우선 메모를 해 두고, 시간이 생길 때에는 원고지에 써 보는 것이 좋다. 단, 글을 쓰기 전에 무슨 내용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그려보아야 한다. ‘내용’이 주제와 소재를 말한다면, ‘어떻게’란 그 방법으로서의 표현 기교, 즉 형식을 말한다.

다른 사람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초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의 원칙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 원칙이란 명확하고 (Clear), 바르고(Correct), 간결하게(Concise) 쓰는 것을 말한다. 독자는 읽기 쉬운 문장을 원한다.

[A] 그러한 문장을 쓰려면 문장에 오류가 없어야 하고 문장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지 않아야 한다. 문장이 길어질수록 언어의 질서가 불명확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마치 하나하나의 벽돌을 정확히 쌓아 올려서 훌륭한 건축물을 이루듯이 문장 하나하나를 쌓아 올려서 전체적인 통일성을 이루도록 글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33.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 ②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실제의 상황에 적용하고 있다.
- ③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대조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질문을 던져 독자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34. 위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없는 것은? (2점)

- ① 글을 쓰는 목적
- ② 메모를 작성하는 방법
- ③ 소개와 제재의 차이점
- ④ 인간 언어와 동물 언어의 차이점
- ⑤ 읽기 쉬운 글이 갖추어야 할 조건

35. [A]에서 제시한 문장 작성의 방법이 가장 잘 반영된 것은? (3점)

- 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어의 발전이 국민들의 의식과 문인(文人)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 국민들은 평소에 바르고 고운 말을 써야 하겠다는 의식을 가져야 하고, 문인들은 글을 쓸 때, 우리의 좋은 말을 발굴하고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한국어의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먼저 대내적으로 한국어가 국제적으로 손색없는 체계적인 언어가 되도록 정비해야 한다. 이렇게 국제적인 언어의 자격을 갖춘 뒤에는 대외적으로 세계에 우리말을 적극 보급해야 한다.
- ③ 세상에는 약 3,000개 이상의 언어가 있고, 400여 개의 문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언어에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글이 창제되지 않았다면 이들과 같이 문자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 되었을 것이 틀림없다.
- ④ 우리가 언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듯이 언어의 본질을 파악해야만 한다. 언어의 본질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호성과 체계성이다. 이러한 면에 초점을 맞춰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 ⑤ 인간 생활의 큰 원칙은 언어생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한편으로는 남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평상시의 말을 주고받는 것은 주체성이 있고, 때로는 발랄하다는 장점이 있다.

[36~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A] [아니리] “*환자섭이나 타다가 자식들 살려 내알 것 아닌가?” “아이고, 우리 정상(情狀)에 지금 환자 떼먹고 도망간다고 주지 안 헐 터이니 함부레 가지 마시오.” “응, 요망시럽게. 아, 거, 무슨 일을 꼭 믿고 다닌가, 그러게? 사구일생 잡고 다니제. 내 갓 좀 내오소.” “갓은 어따 두었어요?” “아, 뒤안 *귀뚝 속에 두었지.” “아이고, 어찌 갓은 귀뚝 속에다 두신단 말이요?” “그런 게 아니라, 신묘년에 조 대비 국상이 났는데, 어떠한 친구 한 분이 백립 하나를 주며 바닥이 존존허다고 나다려 곤쳐 쓰라 하데그려. 아, 이사람아, 내 정상에 지금 갓방에 땀겨 뜨지 해 쓸 수 있나? 끄시럽에 끄실러 쓸라고 거 귀뚝 속에다 두었지. 내 도복 좀 내오소.” “아이고, 도복은 어따 또 두셨소?” “아, 장 안에 두었지.” “아이고, 우리 집에 무슨 장이 있어요?” “지랄허고 있다. 시방. 닭의 장은 장이 아닌가? 덕석 구덕에 내 조대도 좀 내오고.” ㉠ 홍보가 차림채림을 차리는데,

[B] [자진모리] 철대 부러진 현 파립, 조새 갓끈을 달아 써, 편자 떨어진 현 망건, 갓풀 관자, 종이 당줄, 두 통 나게 졸라매고, 자락 떨어진 현 중추막, 열두 도막 이은 띠 흥복통 눌러 띠고, 세살부채를 손에다 들고, 복숭씨로 선초 달아, 활활활활 부치면서, 죽어도 양반이라 여덟 ‘팔’ 자 걸음으로, 갈 ‘지’ 자 걸음으로, 이리저리 저리이리 이리요리 어식비식 내려오다가,

[아니리] 별안간 걱정이 하나 생겼었다. “*환사 호방하고 인사할 일이 걱정이여. 하소를 하자니 내가 반남 박가 양반인데 내가 아식 밀지졌고, 하소를 하자니 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 것이요, 이 일을 어찌꼬.” 하고 내려가다가 제 손수 자다 꿈 깨듯 허졌다. “웁다 생각했다. 내가 웃음으로 좀 따져 볼밖으.” ㉡ 질청 안을 썩 들어서니 아전들이 우 일어나며, “아니, 이거 여 박 생원 아니시오?” “헤헤헤, 알아맞혔구만 알아맞혀. 거 너 아이락하디? 환사 호방 다 덕내나 평안하시코? 헤헤헤.” “예, 우리야 다 편소마는. 박 생원 백씨장(伯氏丈) 기운 안녕하시오?” “헤헤헤, 우리 형님이야 여전하시제. 헤헤헤헤헤.” “아니, 박 생원 어찌 오셨소?” “환사 호방한테 문의가 있어 왔지마는 거 들으실지 않을지 모르지, 헤헤헤.” “무슨 문의요?” “권술은 많고 먹을 것이 없어서, 환자섭이나 주시면 갖다 먹고 가을에 착실히 갓어 드리지요마는, 거 주실지 않을지 모르지, 헤헤헤헤헤헤.” “아, 박 생원 백씨장이 부잔디 환자 자신단 말이 웬 말이요?” “형님의 것이라도 너머 여러 번을 갖다 먹고 보자니까, 헤헤, 염치가 없더구만, 헤헤헤헤헤.”

“그러실 것이요. 박 생원. 그러지 말고 품 하나 팔아 보실랴오?” “아, 돈 생길 품이면 팔고 말고.” “박 생원 곤장 여나뭇 맞아 보실랴오?” 홍보가 곤장 말을 듣더니마는 찻바닥이 뽕돌이채 돌아 단듯 하졌다. “아, 여보, 고을이라 찾아오니깐 별안간 곤장 말이 웬 말이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고을 좌수가 병영 영문에 잡혔는데, 좌수 대신으로 곤장 열만 맞으면 매삐은 한 개에 석 냥씩, 열 개면 서른 냥이요, 여그 누구든지 말 타고 다녀오라는 마삐 댕 냥까지 제직해, 그 일 한 번 해 보실랴오?” 홍보가 곰곰 생각해 보니, ㉢ 돈 삼십 냥을 가졌으면 일 년용이 풍족하고, 돈 또 댕 냥을 가졌으면 우선 호기(糊飢)가 될 듯하야, “여보시오, 그 일 어긋나잖게 하여 주시오. 내가 말 타고 다녀올 것도 없고 정갱이 말로 가 다녀올 것이니 그 돈 댕 냥 날 내주시오.” “아 글랑 그리 하오.”

[중모리] ㉣ 저 아전 거동 보아라. 케문을 덜컥 열고 돈 댕 냥을 내어 주니 홍보가 받아들고, “나, 다녀오리다.” “예, 평안히 다녀오시오, 잉.” 박 홍보 좋아라고 질청 밖으를 썩 나서며, “얼씨구나, 얼씨구나, 돈 봐라, 도돈돈돈돈, 돈 봐라 돈. 이 돈을 눈에 대고 보면 삼강오륜이 다 보여도, 조끔 있다가 떼고 보면 보이난 게 돈 돈밖에는 또 있느냐? 얼씨구나 돈 봐라!” 저으 집으로 올라오며, ㉤ 떡국집으로 들어가서 떡국 돈 반어치를 사서 먹고, 막걸리 집으로 들어가서 막걸리 두 돈어치를 사서 먹고, 비지집으로 들어간다. “여보, 비지 장수. 비지를 돈 반어치만 주시오.” 구지러헌 음식을 사서 먹고, “대장부 한 번 걸음에 엽전 서른댕 냥이 떠들어를 간다.” 저으 집으로 들어오며, ㉥ “여보소, 마누라. 집안 가군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서 들어오면, 우루루루 쫓아 나와서 영접허는 게 도리 옹제, 계집이 이 사람아, 당돌히 앉어서 좌이부동이 어디 웬일인가? 예라, 이 사람, 몹쓸 사람.”

[중중모리] 흥보 마누라 나온다. 박 흥보 마누라 나온다.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소. 내 잘못 되었소. 이리 오시오. 이리 오라면 이리 와. 어디 돈, 어디 돈, 돈 봅시다, 돈 봐.” “놔 두어라, 이 사람아, 자네가 이 돈 근본 알겠나? 잘난 사람도 못한 돈, 못한 사람도 잘난 돈, 베개 너머는 춤 받는 돈, 돈돈돈, 돈 봐라! 이놈의 돈아, 아나 돈아,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얼씨구 돈 봐라.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봐!”

- 작자 미상, 「흥보가」(박봉술 창본)

- * 환자섬 : 관가에서 백성에게 꾸어 주던 곡식
- * 귀뚝 : 굴뚝
- * 환사 호방 : 환자 일을 맡아 보던 아전

36. 위 글의 표현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의성어나 의태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생동감을 주고 있다.
- ② 비속어와 방언 등 구어체의 언어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③ 내용적으로 연결되거나 비슷한 어구를 여러 개 늘어놓아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한자성어나 한시 등 한문 투의 표현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양반의 취향을 고려하고 있다.
- ⑤ 동일한 어구를 반복하거나 인물의 해학적 행동을 통해 청자의 웃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37. ㉠~㉡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구절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보 기>—

판소리는 창자가 무대 위에서 직접 청자를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의 구비 문학이다. 따라서 작품의 전개 과정에 창자가 개입하여 사건의 전개나 인물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견해나 해석, 판단을 직접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8. [A]에 대한 독자의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흥보 내외의 대화를 보니 당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남성과 대등했던 것 같아.
- ② ‘환자섬’ 이야기는 당대에 만연했던 관리들의 부패상을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③ 사실적으로 묘사한 흥보의 구차한 차림새를 보니 당대 민중들의 생활상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
- ④ 흥보의 우스꽝스러운 말과 행동은 생계를 외면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 ⑤ 현실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담을 늘어놓는 흥보의 모습이 우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안쓰럽기도 해.

39. <보기>의 설명을 참고했을 때, 장단이 [B]와 가장 가까운 것은? (3점)

<보 기>

‘장단(長短)’이란, 창자(唱者)가 창을 할 때 박자의 빠르기와 강약의 차이를 구별하여 연주하는 음악의 반주를 뜻하는 말로, 가장 느린 장단인 ‘진양조’로부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로 갈수록 빨라진다.

- ① 이편을 가리키며 강남 지방이요, 저편은 고소성이라. 구름 밖에 솟은 것은 동정호 칠백 리요, 하늘에 닿은 것은 이비의 한라산이라. 악양루(岳陽樓) 완경(玩景)하고 파륜, 군산 돌아드니 경계가 처처 그윽허구나. - 「수궁가」
- ② 잠이 깰까 염려 되어, 크게 울진 못하고, 속으로만 느끼는데, 아이고 아버지, 날 불 날이 몇 날이며, 날 불 밤이 몇 밤이나 되오. 제가 철을 안 연후에 밥 빌기를 놓았더니만은, 내일부터는 동리 걸인이 또 될 것이니, 아버지를 어찌고 갈고. - 「심청가」
- ③ 비어 내고, 비어 내고, 비어 내고, 비어 내고, 비어 내고, 비어 내고, 비어 내고, 비어 내고, 아이고, 좋아 죽겠다. 팔 빠져도 그저 부어라, 부어라, 부어라, 부어라, 부어라, 부어라. 일 년 삼백육십 날만 그저 꾸역꾸역 나오너라. 부어라, 부어라, 부어라, 부어라. 팔 빠져도 그저 부어라, 부어라, 부어라, 부어라. - 「홍보가」
- ④ 지팽이 흘러 짚고 이리 더듬, 저리 더듬. 더듬더듬 더듬어 나가다가, 길 넘어 개천물에, 한 발 자칫 미끄러져, 거꾸로 물에 가, 풍 빠져노니, 아이고 도화동(桃花洞) 심학규 죽네. 나오려면 미끄러져, 풍 빠져 들어가고, 나오려면 미끄러져, 풍 빠져 들어가고, 나오려면 미끄러져, 풍 빠져 들어가고, 그저 점점 들어가니, 아이고, 정신도 말끔하고, 숨도 잘 쉬고 아픈 데 없이 잘 죽는다. - 「심청가」
- ⑤ 가난이야, 가난이야, 원수년의 가난이야. 잘 살고 못 살기는 묘 쓰기에 매였는가? 북두칠성님이 집 자리으 떨어칠 적에 명과 수복을 점지허는거나?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광실 높은 집에 호가사로 잘 사는데 이년의 신세는 어찌하여 밤낮으로 별었어도 삼순구식을 헐 수가 없고, 가장은 부황이 나고, 자식들은 아사지경이 되니, 이것이 모두 다 웬일이냐? 차라리 내가 죽을라네. - 「홍보가」

40. ㉠에 나타난 ‘홍보’의 태도와 행동을 속담으로 표현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송충이가 갈밭에 내려왔다.
- ② 상투가 국수버섯 솟는 듯하다.
- ③ 잉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뜬다.
- ④ 호랑이 없는 굴에서 여우가 왕 노릇한다.
- ⑤ 저는 잘난 백정으로 알고 남은 현 정승으로 안다.